

# Morning Meeting Brief

## 산업 및 종목 분석

### [2021 연간전망] 조선/기계/건설: 회복의 시작점

- [조선] 비중확대 유지. 발주 기저효과와 한국조선사 기술 경쟁력 부각. 2021년 신규발주는 완만한 회복세 예상
- [기계] 비중확대 유지. [항공산업] 분위기 개선 / [건설장비] 인프라 투자 효과 / [전력기계] 기저효과로 큰 폭의 실적개선 기대
- [건설] 대형건설사에 미치는 국내 부동산 규제 영향은 미미. 2021년은 미뤄진 해외수주 진행되며 수주 증가. 신사업 모멘텀 부각 기대

이동현. dongheon.lee@daishin.com

### [2021 연간전망] 자동차: 전기차 전용 플랫폼, 아이오닉 5 가 온다

- 코로나19 이후 단계적으로 산업 수요 감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존 대비 증가 전망
- 글로벌 중장기 전기차 시장은 연간 평균 1.5배 이상 성장 전망. 2021년은 완성차 기업의 전용 전기차 출시가 예정
-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-GMP 기반의 양산 전기차 아이오닉5는 21년 3월 양산 예정. 기존과 완전히 다른 공간 구성이 특징으로 배터리 바닥 배치 형태로 넓은 실내공간과 적재공간 확보 가능. 21년 기준 연 7만대 판매 예상.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중 경쟁력 우위

이동현. dongheon.lee@daishin.com

### [2021 연간전망] 운송: 2010년의 DejaVu!

- [해상운송업] 컨테이너 해운업은 공급부족에 따른 운임 강세 지속으로 사상 최대의 호황국면에 진입. 2022년까지 지속전망
- [육상운송업] 택배 물량 증가와 단가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로 2021년에도 외형과 수익성 동시 개선
- [항공업]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여객 및 화물 부문 수급 변동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

양지환. jihwan.yang@daishin.com

### [2021 연간전망] 정유/화학: 도대체 수요는?

- [정유] 코로나19에 따른 최대 피해 업종이었으나 수요 회복에 따른 업황 정상화 기대
- [정유] 정제마진이 BEP를 하회하는 과도하게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어 수요 회복 시 유가, OSP 등 변수 대비 마진 상승이 빠르게 나타날 전망
- [화학] 추가적인 시황 및 스프레드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초호황 국면에 진입할 전망
- [화학] 특히 이미 좋은 제품보다는 기존에 부진했던 고무, 화섬 등 제품군에서의 시황 반등이 전체적인 화학 시황 상승을 견인할 전망(고무의 경우 이미 반등이 시작되었으며, 화섬에서는 재고 소진 등 반등의 기미가 포착)

한상원. sangwon.han@daishin.com

### [2021 연간전망] 2 차전지: 파티(Party)는 계속된다

- 2025년 글로벌 전기차 13.0백만대(CAGR +34%), EVB 1TWh(+43%) 전망
- 배터리데이의 핵심 내용은 배터리 원가 절감(-56%)이었으며, 공격적인 내재화 계획(2030년 3TWh)을 함께 발표했으나 향후 확인이 필요
- 핵심 투자 포인트가 중장기 성장성에 있다면 단기 실적에 근거한 고평가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판단
- 코로나19가 부정적(제조업)으로 작용했으나 향후 산업 회복 및 성장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 vs. 경기 불안 요인에 의한 완화적 통화정책도 당분간 유지 예상

한상원. sangwon.han@daishin.com

- 하락한 주가, 매력적인 배당수익률, 금융주 내 은행이 수익률면에서는 압도적. 은행주는 COVID-19 폭락 이전 주가 대비 90% 회복에 그쳐 같은 DPS에도 배당수익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음
- 은행섹터를 제외하고서는 보험이나 증권이나 배당수익률면에서는 대동소이한데, 종목별로 차별화가 크기 때문. 증권주 중에는 NH투자증권이, 보험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우세. 한편, 배당성향은 삼성그룹주가 높으며, DPS증가율은 한화생명이 가장 높음
- 은행 커버리지 4사(하나, 우리, KB, 신한)와 NH투자증권, 미래에셋생명 주목 필요

박혜진, hyejin.park@daishin.com

---

[상장 예정 기업] 1 위 게이밍기기 업체, 미디어커머스 밸류에이션 필요

---

- 국내 시장 1위 게이밍기기 사업 + 고성장 중인 뉴라이프 가전 브랜드 업체
- 뉴라이프 가전 사업 단기간 고성장 → 미디어커머스로의 재평가 필요
- E-스포츠 시장 고성장세, 2019년 미국 아마존 진출, 글로벌 진출 확대
- 공모가 기준 2021년 예상 PER 7배 수준. 현저한 저평가

한경래, kyungrae.han@daishin.com

---

조선/기계  
/건설

이동현 dongheon.lee@daishin.com

투자의견

Overweight

비중확대, 유지

## 회복의 시작점

## 2021년 조선/기계/건설 전망

## 조선

- 2020년 연간 전세계 발주량은 1,400만 CGT로 역대 최저였던 2016년 수준. 2020년 신규수주는 목표대비 50% 내외 수준
-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감소는 일부 회복. 전세계 해상 물동량은 2020년 -3% 감소, 2021년 +5% 증가 전망
- 바이든 시대, 유가는 완만한 회복 예상. 화석연료 규제로 유류 공급이 일부 제한되며 균형을 맞춰갈 것
- 2020~21년은 2015~16년 상황의 반복. 발주회복 기대로 주가는 선반영. 신규 발주는 2021년 완만한 회복세 예상

## 기계

- 방산주 중 한국항공우주,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산업 악화 영향과 해외수주 지연으로 주가 소외. 2021년에는 업황 분위기 개선 전망
- 두산밥캣은 매출액에서 미주시장 70%이며 주택경기 호조, 대선 이후 달러 재고 확충, 인프라 투자 기대감 반영되며 재평가 시작
- 전력기계는 신재생 투자 수혜로 관심을 모았으며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턴어라운드, 2021년 기저효과로 큰 폭의 실적 개선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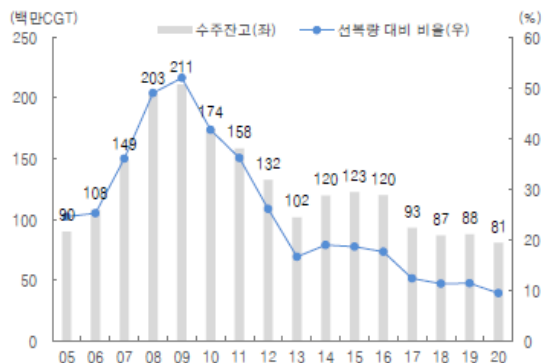
## 건설

- 유가하락 안정화 시기인 2015~2019년 PBR 하단인 0.7배 수준에 미달
- 국내 부동산 규제 영향은 대형 건설사에 크지 않음. 2021년 미뤄진 해외수주 진행되며 수주 증가. 신사업 모멘텀 부각 기대

Top-Picks: 한국조선해양(009540), 한화에어로스페이스(012450),  
현대건설(000720)

- 한국조선해양: 낮은 재무위험, 컨테이너선 선종 강점. LNG프로젝트 수주 모멘텀
- 한화에어로스페이스: 실적호조에 저평가. 항공엔진 개선 기대, 방산 해외수주
- 현대건설: 2021년 수주 호조 예상. 코로나19 총당금 선반영으로 실적 개선
- 관심종목: 현대미포조선, 두산밥캣, 대우건설

연간 수주잔고 및 선박량 대비 비율



주: Clarkson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 자동차

소재산업재팀

투자의견

Overweight

비중확대, 유지

전기차 전용 플랫폼,  
아이오닉5가 온다

## 2021년 자동차 전망

## 산업 수요

-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는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7,070만대로 급감하고 2023년 9,256만대로 코로나19 이전 수요를 회복하며 지속 상승 전망
- 25년 글로벌 친환경 수요는 순수 전기차 2,641만대로 전망. 이는 글로벌 파낸의 26.6% 점유율에 해당. 21년 전기차 자동차시장 M/S는 약 13%로 20년 대비 5% 성장 전망
- 21년 주요국 친환경 정책 후퇴가능성 낮으며, 글로벌 상위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신차 출시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. 전기차 시장의 보다 빠른 확대 국면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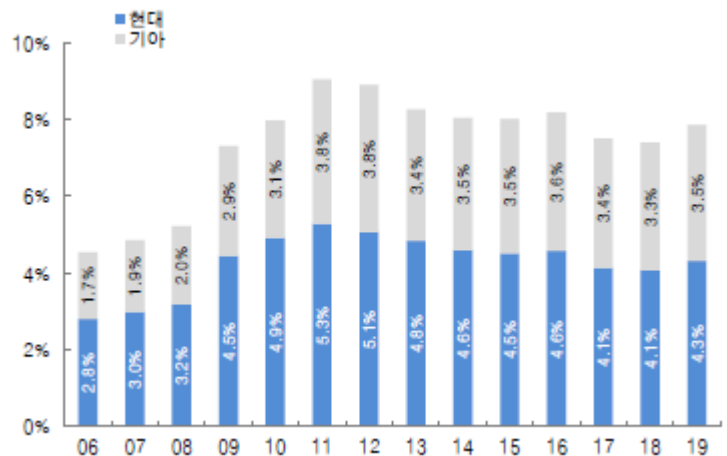
## 전기차 전용 플랫폼

- 플랫폼의 타 차종 수평전개로 원가절감 가능
- 전기차 상품성을 향상
- 차량의 공간 최적화를 통한 여유공간 확보

## 현대차 아이오닉5

- 전용 전기차 플랫폼 E-GMP 기반의 양산 전기차 아이오닉5가 21년 3월에 양산 예정. 주요 관전포인트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공간 구성
- 21년 기준 연 7만대 판매 예상, 테슬라 제외한 완성차 기업 전기차 중 가장 경쟁력 높을 것
- 특징: 1) 기존 전기차 대비 넓은 실내공간, 2) 수준급의 동력성과 제네시스 차량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, 3) 획기적인 충전 속도 및 주행거리, 4) 빌트인 전동 킥보드 및 다양한 활동을 위한 220v 콘센트 탑재, 5) 기존 사이드 미러 대신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탑재

## 현대차그룹의 북미 합산 점유율 추이



주: 현대차, 대산증권 Research Center

## 운송

양지환 jihwan.yang@daishin.com

투자의견

Overweight

비중확대, 유지

## 2010년의 Dejavu!

## 2021년 운송업 전망

해상운송업

- 컨테이너 해운업은 공급부족에 따른 운임 강세 지속으로 사상 최대 호황국면 진입하여, 2022년까지 개선 전망
- 건화물 해운업도 수급 개선에 따른 BDI 상승 예상하나, 선사들의 Open Tonnage 부족으로 지수상승대비 이익 레버리지 효과는 제한적

육상운송업

- 택배물량 증가와 단가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로 2021년에도 외형과 수익성 동시 개선되는 흐름 지속
- 2030이 주도하던 온라인/모바일 쇼핑의 이용객은 코로나19로 4050세대까지 확산. Untact 소비의 편리함을 경험한 4050 세대의 구매 행태는 온라인/모바일을 활용하는 형태로 점점 더 Lock-In 될 것

항공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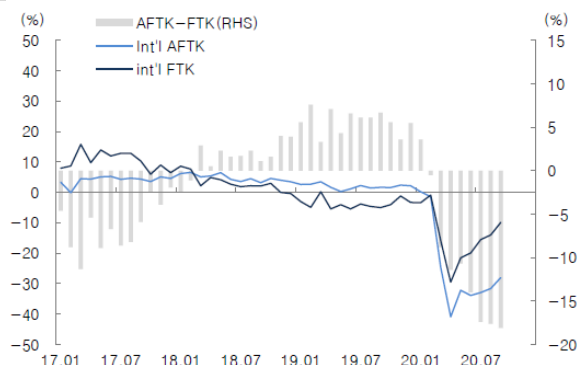
-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, 회복국면에 프리미엄 부여 가능함
- 항공화물은 코로나로 인한 공급 부족 상황이며 2021년에도 지속될 가능성 높음
- 2020년 4분기 항공화물 성수기 도래로 3분기 조정 받았던 화물 운임 재차 강세 전환, 2021년에도 유사한 현상 전망함

Top-Picks: HMM(011200), CJ대한통운(000120),

현대글로벌비스(086280), 대한항공

- HMM: 컨테이너 수급 개선에 따른 운임 상승 추세는 장기간 지속 가능, 내년 실적 개선 기대
- CJ대한통운: 2021년 Naver와 지분스왑 이후 E Fulfillment사업 확대, MP 투자 확대 통한 택배사업 효율성 강화로 이익 개선 국면 이어질 것
- 현대글로벌비스: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과 완성차 Pent up Demand에 따른 실적개선, 신사업 진출로 상승 모멘텀 확보
- 대한항공: 2021년 코로나 백신 개발 및 보급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마무리 될 경우 초대형 국적사 탄생에 따른 프리미엄 부여 가능할 것으로 전망

## 코로나19로 인한 공급감소가 수요감소보다 크게 나타남



주: IATA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 정유/화학

한상원 sangwon.han@daishin.com

투자의견

Overweight

비중확대, 유지

## 도대체 수요는?

## 2021년 정유/화학 전망

## 정유

- 코로나19에 따른 최대 피해 업종이었으나 수요 회복에 따른 업황 정상화 기대
- 정제마진이 BEP를 하회하는 과도하게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어 수요 회복 시 유가, OSP 등 변수 대비 마진 상승이 빠르게 나타날 전망
- 다만 낮아진 설비 가동률의 회복과 높아진 재고의 소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유의미한 정제마진 상승은 하반기부터로 예상
- 국제 유가 급락으로 사우디 아람코, 미국 엑슨모빌 등 Oil Major들의 투자 (CAPEX) 위축으로 신증설에 따른 공급 부담 완화 역시 긍정적인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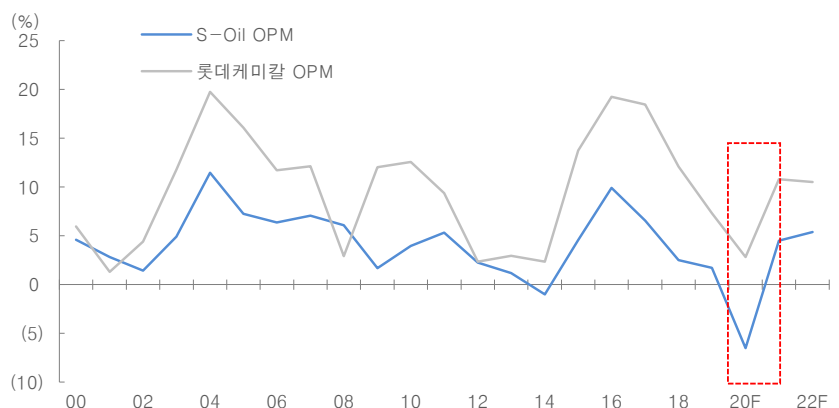
## 화학

- 추가적인 시황 및 스프레드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초호황 국면에 진입할 전망
- 특히 이미 좋은 제품보다는 기존에 부진했던 고무, 화섬 등 제품군에서의 시황 반등이 전체적인 화학 시황 상승을 견인할 전망(고무의 경우 이미 반등이 시작되었으며, 화섬에서는 재고 소진 등 반등의 기미가 포착)
- 또한 화학 수요의 핵심인 중국이 미국, 유럽 등 국가와 달리 차별적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
- 공급 측면에서도 2020년을 기점으로 신증설이 Peak-Out하고, 업스트림(E&P/정유)의 CAPEX가 위축되고 있는 점도 부담 완화 요인
-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2차전지, 태양광 등의 성장성 역시 여전한 기대 요인

Top-Picks: LG화학(051910), 한화솔루션(009830), 롯데케미칼(011170), 효성티앤씨(298020) vs. 관심종목: SK이노베이션(096770)

- LG화학: 투자의견 매수, 목표주가 980,000원. 2차전지 성장 지속
- 한화솔루션: 투자의견 매수, 목표주가 65,000원. 태양광 Re-rating
- 롯데케미칼: 투자의견 매수, 목표주가 350,000원. 실적 가장 크게 반전
- 효성티앤씨: 투자의견 매수, 목표주가 220,000원. 화섬 체인 반등 최대 수혜
- SK이노베이션: 투자의견 매수, 목표주가 200,000원. 정유 회복+EVB 저평가

## 정유/화학 장기 사이클 추이 및 전망



자료: S-Oil, 롯데케미칼 대산증권 Research Center

## 2 차전지

한상원

sangwon.han@daishin.com

투자의견

Overweight

비중확대, 유지

## 파티(Party)는 계속된다

## 2021년 2차전지 전망

## 시장 전망

- 2025년 글로벌 전기차 13.0백만대(CAGR +34%), EVB 1TWh(+43%) 전망
- 유럽: 배출 및 연비 규제, 내연기관 판매 금지 등 정책 강화
- 중국: 2H20부터 성장 재개 vs.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퇴출
- 미국: 상대적으로 위축됐으나 바이든 당선으로 성장 여력 확대

## 테슬라, 배터리데이 그 이후

- 배터리데이의 핵심 내용은 배터리 원가 절감(-56%)이었으며, 공격적인 내재화 계획(2030년 3TWh)을 함께 발표했으나 향후 확인이 필요
- 전기차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테슬라 외 업체들로부터 창출되는 수요 기회(비중 70% 이상 전망)에 잘 대응하는 업체들에 주목할 필요
- VW, HMG, GM 등 공격적인 전용 전기차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주요 OEM들의 수주에서 한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~100% 수준으로 높음

## Valuation에 대한 고민

- 핵심 투자 포인트가 중장기 성장성에 있다면 단기 실적에 근거한 고평가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판단
- 코로나19가 부정적(제조업)으로 작용했으나 향후 산업 회복 및 성장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 vs. 경기 불안 요인에 의한 완화적 통화정책도 당분간 유지 예상

Top-Picks: 에코프로비엠(247540), 천보(278280) vs. 관심종목: SKC(011790)

- 에코프로비엠: 투자의견 매수, 목표주가 200,000원. 하이니켈 우위 기반 고성장
- 천보: 투자의견 매수, 목표주가 200,000원. 전해질 첨가제에 대한 수요 확대
- SKC: 투자의견 매수, 목표주가 118,000원. 글로벌 전지박 1위+상대 저평가

## 글로벌 전기차 판매 vs. 2차전지 업종 주가지수 추이 및 전망



주: 주가지수는 셀 업체 3사 기준

자료: Bloomberg, SNE, Marklines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금융업

박혜진  
hyejin.park@daishin.com  
한승협  
songhyeop.han@daishin.com

투자의견  
Overweight

비중확대, 유지

Rating & Target

| 종목명     | 투자의견          | 목표주가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[은행]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신한지주    | Buy           | 43,000원  |
| ★하나금융지주 | Buy           | 42,000원  |
| ★KB금융   | Buy           | 56,000원  |
| 우리금융지주  | Buy           | 15,000원  |
| [증권]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한국금융지주  | Buy           | 100,000원 |
| NH투자증권  | Buy           | 13,000원  |
| ★미래에셋대우 | Buy           | 13,000원  |
| 삼성증권    | Buy           | 45,000원  |
| 카카오증권   | Buy           | 130,000원 |
| [보험]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삼성생명    | Marketperform | 64,000원  |
| 한화생명    | Marketperform | 2,000원   |
| 미래에셋생명  | Buy           | 5,500원   |
| 삼성화재    | Buy           | 260,000원 |
| DB손해보험  | Buy           | 65,000원  |
| 현대해상    | Buy           | 32,000원  |

커버리지 2020 배당점검

하락한 주가, 매력적인 배당수익률, 금융주 내 은행이 수익률면에서는 압도적

- 올해도 은행주가 압도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록할 전망. 우리의 커버리지 4사 금융지주 (KB금융, 신한지주, 하나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)의 2020년 예상 평균 배당수익률은 5.4%. 하나금융지주가 6.0%로 가장 높고 우리금융지주가 5.8%로 그 다음
- 은행주는 COVID-19 폭락 이전 주가 대비 90% 회복에 그쳐 같은 DPS에도 배당수익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음
- 은행섹터를 제외하고서는 보험이나 증권이나 배당수익률면에서는 대동소이한데, 종목별로 차별화가 크기 때문. NH투자증권의 2020년 예상 배당수익률이 5.3%로 커버리지 기업 15개사 중 3번째로 높음. 그도 그럴 것이 동사는 올해 2019년 대비 30% 가까이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
- 그 다음으로 생명보험사 중 독보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이 미래에셋생명. 동사의 배당수익률은 5.1%로 커버리지 중 5번째. 동사는 지난 3년동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 중 하나였는데, 생명보험주가 지속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크게 빛을 보지 못했음

배당성향은 역시 삼성그룹주, DPS증가율은 한화생명

- 배당수익률이 배당성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님. 우리의 커버리지 15개사 기준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회사는 삼성화재로 2020년 배당성향 45%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. 동사의 2019년 배당성향(별도, 보통주 기준)은 55.6%를 기록한 바 있음. 배당성향으로는 삼성그룹주가 커버리지 상위권을 모두 차지
- DPS증가율은 한화생명이 가장 높음 전망. 지난해 30원에서 올해 50원으로 66.7% 증가할 것으로 예상. 올해는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됨에 따라 DPS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그 다음으로는 DB손해보험, 현대해상 등 2위권 손해보험사의 증가율이 높을 것. 두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 기저효과가 큼. 4차례 걸친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올해 순이익 증가율만큼의 DPS증가가 예상

은행 커버리지 4사(하나, 우리, KB, 신한)와 NH투자증권, 미래에셋생명 주목 필요

- 이로써 20%대의 높이 않은 배당성향과, 한자릿수 순이익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의 배당수익률이 올해도 약진할 전망. 커버리지 15개사 중 5위권 내 은행 커버리지 3개가 포함
- 증권에서 NH투자증권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보험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의 수익률이 가장 높음. 앞서 언급한 회사들의 배당정책은 앞으로 크게 변할 것이 없고, 일관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배당매력의 관점에서 이 6개사를 주목할 필요



애플

한경래

이새롬

Kvunoras.han@daishin.com  
투자지원

saerom.lee@daishin.com  
N/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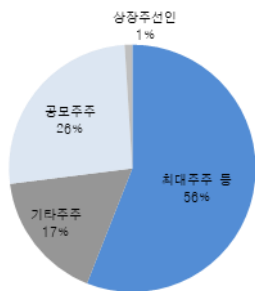
확정공모가

24,300

스몰캡업종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공모확정가    | 24,300원   |
| 예상 시가총액  | 2,356억원   |
| 공모 금액    | 615~713억원 |
| 공모 주식수   | 2,507천주   |
| 상장 후 주식수 | 9,694천주   |
| 공모 비율    | 26%       |
| 상장 예정일   | 12월 2일    |

| 주가수익률(%) | 1M | 3M | 6M | 12M |
|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-|
| 절대수익률    | -  | -  | -  | -   |
| 상대수익률    | -  | -  | -  | -   |



# 1위 게이밍기기 업체, 미디어커머스 밸류에이션 필요

국내 시장 1위 게이밍기어 사업 + 고성장 중인 뉴라이프 가전 브랜드 업체

- 2013년 게이밍기어 시장 진출 이후 점유율 확대, 국내 1위로 성장
- 19년 하반기 시작한 뉴라이프 가전 사업부 빠르게 성장 자체 브랜드 OHELLA 무선 욕실 청소기(네오스핀), BEATONIC(블루투스 이어폰 E30) 런칭 후 단기간 내 고성장 기록
- 교육부 시범사업인 초, 중학교 학급 내 스마트 단말 도입 사업에서 충전함 공급 업체로 선정. 20년 매출 비중은 게이밍기어 71%, 뉴라이프 가전 23%, 스마트스쿨 6%

뉴라이프 가전 사업 단기간 고성장 → 미디어커머스로의 재평가 필요

- 뉴라이프 가전 사업 매출액 2019년 10억원 → 1H20 140억원(OPM 26%)으로 급성장
- 단기에 성공 이유는 1) 게이밍기어 시장 1위 브랜드로 주요 타겟층 10~20대 트렌드 민감한 소비자들 취향에 맞는 브랜딩, 상품 기획 능력 보유, 2) 1인가구의 구조적인 증가에 맞춰 가심비 자극하는 트렌디한 디자인, 마케팅, 3) 온라인 커머스 통한 판매 전략
- 현재 SKU 60개 정도 라인업 보유. 뉴라이프 가전 매출액 2020년 373억원(+3,630% YoY), 2021년 745억원(+99.7% YoY) 예상
- 대표 미디어커머스 업체인 블랑크코퍼레이션 2019년 매출 1314억원, 영업손실 89억원 기록했으나 1조 가까운 기업가치 평가 받음. 미디어커머스 회사로의 재평가

E-스포츠 시장 고성장세, 2019년 미국 아마존 진출, 글로벌 진출 확대

- 글로벌 E-스포츠 시장 2018년에서 2023년 연평균 15% 고성장 예상. E-스포츠 시장자 수도 동시에 증가세 → 게이밍기어 시장의 잠재적인 소비자 층 확대되는 것 의미
- 2019년 11월 미국 아마존 진출 이후 2020년 상반기 해외 매출액 42억원 2019년 매출액 39억원 상회. 10월 미국 아마존 게이밍 마우스 부문 1위 기록하며 좋은 성과
- 2021년 게이밍기어 매출액 1,614억원(+37.6% YoY) 전망

공모가 기준 2021년 예상 PER 7배 수준. 현저한 저평가

- 2021년 매출액 2,579억원(+56.5% YoY), 영업이익 446억원(+75.5% YoY) 전망
- 애플의 주요 사업 부문 게이밍기어, 미디어커머스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 받고 있음
- 2020년 9월 나스닥 상장된 글로벌 게이밍기기 업체 Corsair는 상장 이후 2개월만에 주가 2배 이상 상승, 12M Forward PER 30배 상회. 미디어커머스 밸류에이션까지 고려하면 상장 이후 확실한 주가 리레이팅 가능하다고 판단

##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

(단위: 십억원, 원, %)

|         | 2018A | 2019A | 2020F  | 2021F  | 2022F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매출액     | 66.3  | 84.3  | 164.8  | 257.9  | 351.2  |
| 영업이익    | 3.7   | 5.5   | 25.4   | 44.6   | 65.1   |
| 세전순이익   | 3.1   | 4.2   | 24.5   | 41.4   | 61.2   |
| 총당기순이익  | 2.6   | 3.5   | 20.3   | 34.3   | 50.8   |
| 자비자분순이익 | 2.6   | 3.5   | 20.3   | 34.3   | 50.8   |
| EPS     |       |       | 2094.0 | 3541.1 | 5237.5 |
| PER     |       |       | 11.6   | 6.9    | 4.6    |

자료: 애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▶ Compliance Notice

- ✓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✓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✓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- ✓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